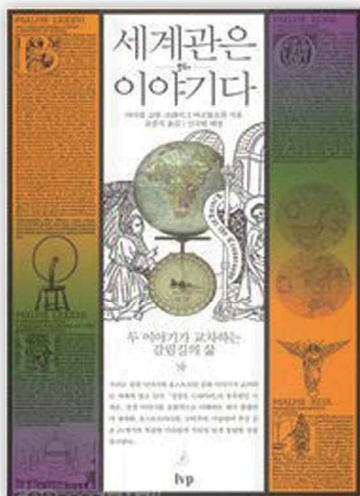


교차로에서 나누는 세계관 이야기

신국원



마이클 고힌,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IVP, 2011

지금 세계는 교차로에 서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위기이자 기회라면 우리 모두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이 책은 교차로에서 바른길을 선택할 안목을 제공하는 기독교세계관 ‘입문서’다. 마이크와 크레이그는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전통의 적자(嫡子)들이다. 하지만 단순한 계승자들은 아니다. 그들은 이 전통의 본질이 성경의 복음을 위기에 빠진 문화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임을 잘 알고 그 정신을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다.

마이크와 크레이그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복음이 주류 문화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보이기 위해서는 성경 이야기를 ‘벗어나’ 세계관의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 이질적인 철학이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특히 세계관 담론이 철학적 주지주의에 빠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형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식자들의 말잔치로 끝날 우려에 대한 논의가 몇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세계관 진술이 내러티브 또는 이야기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했다. 마이크와 크레이그도 철학 이론처럼 비치는 창조-타락-구속 도식에 성경 이야기를 입히는 작업을 해 왔다. 이는 세계관이 모든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커다란 이야기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성경의 진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뉴비긴의 말처럼 성경은 바라볼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봐야 하는 책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비롯하여 기독교 학문이나 사회 참여 그리고 문화론은 복음 전도나 선교와 무관하거나 심지어 장애를 가져온

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생각을 불식시킨 것이 두 사람의 강점이다. 그들은 신학이건 기독교 세계관이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며 목회와 신학을 해 온 사람들이다. 두 사람의 논의는 복음에서 출발하며 그를 통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들은 전도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한다. 물론 전도가 피상적인 복음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문화의 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한다.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무르거나 특정 지역만의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은 보편적 삶의 기준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를 공적 영역에서 증거하는 데 필수적이다.

마이크와 크레이그는 서구의 전통과 세계관이 이미 여러 차례 기독교와 교차했음을 깨닫는다. “서구 문화를 지배하는 세계관인 모더니즘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긴 역사의 산물이다.” 마이크와 크레이그는 쉼퍼처럼 서구 문화의 기초가 된 근본 신념들을 형성한 발달사를 더듬어 보면서, 서구인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야기를

마이크와 크레이그는 세계관 운동이 어떤 매혹과 환멸을 가졌는지도 잘 알고 있다. 세계관이 바뀌면 세계도 덩달아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계관 이야기는 우리를 흥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완고함을 깨닫는 순간 흔히 좌절을 경험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관 공부를 할수록 과제는 더욱 넓고 깊어지고 어려워진다.

새롭게 조명하려 한다. 이는 서구 사회 이야기의 영웅 자리에 이성 대신 복음을 두는 방식으로 서구의 지성사를 다시 쓰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화합할 수 없는 복음과 헬라의 세계관이 어떻게 중세의 종합과 르네상스를 지나며 인본주의 세계관의 확립으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보이는 작업이다.

성경 이야기와 서구적 세계관의 궤적은 서로 교차하지만 평행하지는 않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와 계몽주의 모더니즘의 이야기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이 경쟁을 벌이는 교차로에 서 있다. 모더니즘은 기독교 유산에서 신을 죽인 인본주의 정신의 산물이다. 반면에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비판하여 종교를 되살려 놓았지만, 인본주의의 자율성을 극대화한다. 소비주의와 세계화라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만연하는 가운데 이슬람이 번영하고 있다. 이런 양립될 수 없는 세계관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복음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증거되어야 할 것인가?

자유주의가 복음을 사회적 메시지로 전락시킨 데 대해 복음주의가 반대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복음으로 문화와 사회를 조명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할 소명을 저버린 것은 잘못이다. 세계관의 교차로에서의 복음 증거는 사회와 문화를 버려두고 퇴각하는 것이 아

나라 세계관이 교차하는 긴장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요소마다 뉴비긴이 부각되는 것은 그가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의 공공성을 강조한 뛰어난 이론가요 실천가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또한 오르와 카이퍼가 자신들의 시대에 행했던 “선교적 대면”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현하길 소망한다. 선교사는 그가 파송된 문화와 성경의 이야기를 긴장 관계 속에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 타협하거나 순응하면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겠지만, 문화와의 소통이 끊어진다면 복음은 거부될 것이다.

마이크와 크레이그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타협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문화에 접목하는 것보다 강력한 문화적 우상들에 의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안다. 두 사람은 이런 위험을 지적해 온 재세례파와 국교회지론 전통의 경고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 변혁이나 정의 구현은 소외된 자들을 향한 자비와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바른 증인이 되기 위해 영적 증언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이크와 크레이그는 세계관 운동이 어떤 매혹과 환멸을 가졌는지도 잘 알고 있다. 세계관이 바뀌면 세계도 덩달아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계관 이야기는 우리를 흥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완고함을 깨닫는 순간 흔히 좌절을 경험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관 공부를 할수록 과제는 더욱 넓고 깊어지고 어려워진다. 그래서 “승리주의”와 “패배주의”를 넘어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결단과 인내가 필수적이다. 이런 씨름을 너무도 잘 아는 저자들은 “목회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후기를 달았다. 충고의 핵심은 우리는 혼자 아니며 보내신 분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그러니 “치열한 영성만이 이런 일을 해내도록 우리를 떠받쳐 줄 수 있다.” 영적 습관 없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소명에 따라 증언할 뿐 그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단 공적 광장에 있는 세력들을 상대할 때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해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구속은 회복이다. 회복된 창조 세계가 곧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며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마이크와 크레이그는 교차로에 선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동료다. 두 사람은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에 기초하여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30년 넘게 같은 논의를 해 온 우리도 이제 그들이 보여 준 좌표를 참고하여 온 길을 돌아보고 갈 길을 내다볼 필요가 있다.



신국원 총신대학교 신학과 철학 담당 교수이며 분당중앙교회 협동 목사이자 어머니 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교수,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있다.